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2)(2) 뿌리 깊은 나무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뿌리 깊은 나무」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인물의 입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 각 구절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도가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와 이에 반발하는 신하들의 입장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13 광화문 앞 (낮)

해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해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해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좋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cut.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엔 해강이 있다.

해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 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사옵니다.

이도: (보고)

해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이옵니다. 현대……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도: …….

해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요, 없소.

해강: (그럼 그렇지.) 현대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이요. (하며 궤도로 간다.)

cut. 궤도에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요.

해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해강: (멈칫)

모두: (멈칫)

이도: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해강: …….

이도: 이는 말이요.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 점점 강한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요!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요! 삼봉은!

해강: …….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 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채윤: (보는 데서 cut.)

S#14 경복궁 일각 [A] (낮, S# 14~16 몽타주)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cut.)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닙니다. (cut.)

S#15 성삼문 술 마신 곳 (낮)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순지: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cut.)

이도: (버럭) 네놈이 선비냐? 네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나? (cut.)

S#16 경복궁 어느 곳 (낮)

상소를 쓰고 있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심종수: 《농사직설》을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cut.)

이도: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더 피폐하게 한다. (cut.)

등등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 몽타주.

<중략>

S#55 반촌 한구석 (낮)

한가 نوم이 어느 쪽을 보면 옆의 가리온도 한가 노미 보는 곳을 보는데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마주 보고 있는 개파이와 연두. 나뭇가지로 땅에 뭔가를 쓰며 놓고 있다.

개파이가 손바닥으로 흙을 지우더니, 새로 쓴다.

“카르페이”. 그 앞에 연두가 쓴 글자도 보인다.

“난 밥을 먹었다.”

가리온, 놀라서 본다.

한가 نوم: (자기도 믿기지 않아) 개파이는 자기 이름을 쓰고, 연두는 이 글자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가리온: (쿵!) ……!

한가 نوم: 이틀 만입니다!

가리온: (쿵! 천천히 개파이에게 다가가 이름 쓴 걸 가리키며) 이게 뭐냐.

개파이: 내…… 이름이다.

가리온: 어떻게…… 읽는 것이냐?

개파이: (한 글자씩 짚으며) 카…… 르…… 페…… 이…….

가리온: 진정…… 이틀 사이에……?

하는데 연두, 옆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 가리온 고개 돌려, 연두가 쓴 것을 보는데, 바닥에 있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진정 이틀 사이에” 한가 نوم도 보고 놀란다.

한가 نوم: (경악하여) 아니, 이럴 수가…….

가리온: 어찌 그러는가?

한가 نوم: 지금 본원이 하신 말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 진정…… 이틀…… 사이에’.

가리온: (충격과 경악) ……! (㉡ **짱! 하는 효과음**이나 **음악**)

한가 نوم: (놀라움으로 글자와 본원 번갈아 보면)

가리온: (놀라움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쓴 것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S#56 반촌 내 도축소 (낮)

가리온, 탁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 한가 نوم

의 표정도 심각하다.

가리온: (멍하게 놀라움에) ㉠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쓰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가 نوم: 예?

가리온: (멍하게 놀라움에) 그것은 어떤 세상일까?

한가 نوم: 글썄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라.

가리온: 글자는 무기다. 칼보다, 창보다, 유항보다 무서운 무기다. 사대부가 사대부인 이유는! 양반집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혈통 때문이 아니라, 글을 알기 때문에 사대부인 것이야.

한가 نوم: 예, 물론입니다.

가리온: 그게 사대부의 권력이요, 힘의 근거다. 현대 이 글자라면, 모두가 글자를 읽고 쓰는 세상이 온다면…… 조선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세상은 혼돈에 가득 차고…… 이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질 것이야!

한가 نوم: 어찌해야 합니까?

가리온: (결연하게) 막아야지. 이 글자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한가 نوم: (떠오른 듯) 허나……! 이미 오늘! 이신적이 거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리온: (쿵!) ……!

<중략>

S# 59 반촌 내 도축소 (낮)

S# 56 연결.

가리온: (위기감 가득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며) 이도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신적을 막아야 해! 당장 중지시키거라, 당장!

[B] (화면 분할) 웃으며 가는 이도와 심각한 가리온에서 엔딩.

- 김영현·박상연 극본 (이정명 원작), 「뿌리 깊은 나무」

1.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는 백성을 부추겨 사대부의 권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 ② 이도는 새로운 문자를 통해 백성들이 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리온은 개파리와 연두의 빠른 한자 습득력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 ④ 가리온은 사대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막으려 하고 있다.
- ⑤ 한가 نوم은 새로운 글자가 가져올 파급력에 예전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2. [A], [B]의 연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짧게 압축하여 표현한다.
- ② [A]: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한 이도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③ [B]: 두 인물의 대비되는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B]: 화면 전체에 인물의 표정을 부각하여 번갈아 보여 준다.
- ⑤ [B]: 대결 구도를 부각하여 두 인물의 갈등 구조를 부각한다.

3. S#13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혜강은 임금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이도는 백성의 말이 관료를 거치면 왜곡, 편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③ 혜강은 이도가 글자를 만드는 일이 유학의 도를 버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④ 이도는 언로를 띄워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임금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이도는 임금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대 세력을 민주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이도’의 성격이 드러난다.
- ② ㉡: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문이다.
- ③ ㉢: ‘개파이’와 ‘연두’가 쓰는 글자가 배우기 쉬운 글자임을 알고 놀라는 ‘가리온’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 새 글자의 실체를 알고 ‘가리온’이 받은 충격을 음향 효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쓰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이도(세종대왕의 이름)는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대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의 몇몇 학사들과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그러다 그 사실이 알려져 유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 제16부 -

【S#13】 광화문 앞 (낮)

혜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과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는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혜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혜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좋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cut. 이도의 과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

엔 혜강이 있다.

혜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 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사옵니다.

이도: (보고)

혜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이옵니다. 헌데……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도: …….

혜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오, 없소.

혜강: (그럼 그렇지.)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이오. (하며 과도로 간다.)

cut. 과도에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터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혜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혜강: (멈칫)

모두: (멈칫)

이도: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혜강: …….

이도: 이는 말이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강한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

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오! 삼봉은!

해강: …….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 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채윤: (보는 데서 cut.)

S#14 경복궁 일각 (낮, S# 14~16몽타주)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cut.)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cut.)

S#15 성삼문 술 마신 곳 (낮)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순지: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cut.)

이도: (버럭) 네놈이 선비냐? 네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나? (cut.)

S#16 경복궁 어느 곳 (낮)

상소를 쓰고 있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심종수: 《농사직설》을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cut.)

이도: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니 않은가? 관리

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더 피폐하게 한다. (cut.)

등등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 몽타주.

S#17 글자방 (낮)

힘들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이도. 근지, 목야, 덕금, 지밀 따라 들어오고…….

이도: 어이구, 힘이 달리는구나. 고기 좀 먹어야겠다, 많이.

지밀상궁: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근지: 전하, 얼마나 힘이 드시옵니까.

이도: …….

근지: 그래도 오늘 전하께서 오랫동안 논쟁하셨으니, 다 설득될 것이옵니다.

이도: (한숨 쉬며) 아직 큰 게 남았다.

목야: 부제학 최만리 영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도: 그래.

덕금: 대제학 말씀으로는, (글자방 끝에서 끝을 가리키며) 여기서 저기까지 될 만큼 길게 쓰신다 합니다.

목야: 예, 계속 종이를 더 가져오라 하시면서 말이옵니다.

덕금: 전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셔서 만든 것을, 어찌 다들 그러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이도: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이다. 부제학은 얼마나 또 조곤조곤 따지려는지, 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사대부가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밀 결사 조직 ‘밀본’ 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재상 총재제’를 관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현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밀본’의 중심인물(본원)인 ‘가리온’은 세종의 새 글자 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집현전 폐지를 요구하는 거래를 계획한다.

<중략>

S#56 반촌 내 도축소 (낮)

가리온, 탁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 한가 념의 표정도 심각하다.

가리온: (멍하게 놀라움에)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쓰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가 념: 예?

가리온: (멍하게 놀라움에) 그것은 어떤 세상일까?

한가 념: 글썄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라.

가리온: 글자는 무기다. 칼보다, 창보다, 유창보다 무서운 무기다. 사대부가 사대부인 이유는! 양반집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혈통 때문이 아니라, 글을 알기 때문에 사대부인 것이야.

한가 념: 예, 물론입니다.

가리온: 그게 사대부의 권력이요, 힘의 근거다. 현대 이 글자라면, 모두가 글자를 읽고 쓰는 세상이 온다면…… 조선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세상은 혼돈에 가득 차고…… 이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질 것이야!

한가 념: 어찌해야 합니까?

가리온: (결연하게) 막아야지. 이 글자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한가 념: (떠오른 듯) 허나……! 이미 오늘! 이신적이 거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리온: (쿵!) ……!

- 김영현·박상연 극본 (이정명 원작), 「뿌리 깊은 나무」

급력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신적'과 '이도'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신유형

「뿌리 깊은 나무」의 내용을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갈래 상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이도, 가리온 등 다양한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알아 놓고 있어야 합니다.

【6~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이도(세종대왕의 이름)는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대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의 몇몇 학사들과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그러다 그 사실이 알려져 유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 제16부 -

S#13 광화문 앞 (낮)

혜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혜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혜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종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 cut.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엔 혜강이 있다.

5.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13에서는 ‘혜강’과 ‘채윤’, ‘이도’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대해 설전(舌戰)하고 있다.
- ② S#14에서 ‘장은성’은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 ③ S#15에서 ‘이순지’는 백성들이 그림으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글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S#17에서 ‘근지’는 ‘이도’와 다른 신하와의 논쟁 때문에 앞으로의 일이 해결될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⑤ S#56에서 ‘한가 념’은 새로운 글자의 실체와 파

해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 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사옵니다.

이도: (보고)

해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이옵니다. 현대……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도: …….

해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오, 없소.

해강: (그럼 그렇지.) 현대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이오. (하며 과도로 간다.)

㉠ cut. 과도에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해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해강: (멈칫)

모두: (멈칫)

이도: ㉡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해강: …….

이도: 이는 말이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강한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오! 삼봉은!

해강: …….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 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채윤: (보는 데서 cut.)

S#14 경복궁 일각 (낮, S# 14~16몽타주)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cut.)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cut.)

<중략>

S#16 경복궁 어느 곳 (낮)

상소를 쓰고 있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심종수: 《농사직설》을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cut.)

이도: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더 피폐하게 한다. (cut.)

등등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 몽타주.

S#17 글자방 (낮)

힘들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이도. 근지, 목야, 덕금, 지밀 따라 들어오고…….

이도: 어이구, 힘이 달리는구나. 고기 좀 먹어야겠다, 많이.

지밀상궁: 이미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근지: 전하, 얼마나 힘이 드시옵니까.

이도: …….

근지: 그래도 오늘 전하께서 오랫동안 논쟁하셨으니, 다 설득될 것이옵니다.

이도: (한숨 쉬며) 아직 큰 게 남았다.

목야: 부제학 최만리 영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도: 그래.

덕금: 대제학 말씀으로는, (글자방 끝에서 끝을 가리키며) 여기서 저기까지 될 만큼 길게 쓰신다 합니다.

목야: 예, 계속 종이를 더 가져오라 하시면서 말이옵니다.

덕금: 전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셔서 만든 것을, 어찌 다들 그러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이도: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이다. 부제학은 얼마나 또 조근조근 따지려는지, 원.

<중략>

S#55 반촌 한구석 (낮)

한가 نوم이 어느 쪽을 보면 옆의 가리온도 한가 노미 보는 곳을 보는데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마주 보고 있는 개파이와 연두. 나뭇가지로 땅에 뭔가를 쓰며 놀고 있다.

㉠ 개파이가 손바닥으로 흙을 지우더니, 새로 쓴다.

“카르페이”. 그 앞에 연두가 쓴 글자도 보인다.

“난 밥을 먹었다.”

가리온, 놀라서 본다.

한가 نوم: (자기도 믿기지 않아) 개파이는 자기 이름을 쓰고, 연두는 이 글자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가리온: (㉡ 쿵!) ……!

한가 نوم: 이를 만입니다!

가리온: (쿵! 천천히 개파이에게 다가가 이름 쓴 걸 가리키며) 이게 뭐냐.

개파이: 내…… 이름이다.

가리온: 어떻게…… 읽는 것이냐?

개파이: (한 글자씩 짚으며) 카…… 르…… 페…… 이…….

가리온: ㉢ 진정…… 이를 사이에……?

하는데 연두, 옆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 가리온 고개 돌려, 연두가 쓴 것을 보는데, 바닥에 있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진정 이를 사이에” 한가 نوم도 보고 놀란다.

한가 نوم: (경악하여) 아니, 이럴 수가…….

가리온: 어찌 그러는가?

한가 نوم: 지금 본원이 하신 말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진정…… 이를…… 사이에’.

가리온: (충격과 경악) ……! (굉! 하는 효과음이나 음악)

한가 نوم: (놀라움으로 글자와 본원 번갈아 보면)

가리온: (놀라움으로) ㉣ 말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쓴 것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S#56 반촌 내 도축소 (낮)

가리온, 탁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 한가 노미 표정도 심각하다.

가리온: (멍하게 놀라움에)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쓰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가 نوم: 예?

가리온: (멍하게 놀라움에) 그것은 어떤 세상일까?

한가 نوم: 글썽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라.

가리온: ㉤ 글자는 무기다. 칼보다, 창보다, 유향보다 무서운 무기다. 사대부가 사대부인 이유는! 양반집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혈통 때문이 아니라, 글을 알기 때문에 사대부인 것이야.

한가 نوم: 예, 물론입니다.

가리온: 그게 사대부의 권력이요, 힘의 근거다. 현대 이 글자라면, 모두가 글자를 읽고 쓰는 세상이 온다면…… ㉥ 조선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세상은 혼돈에 가득 차고…… 이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질 것이야!

한가 نوم: 어찌해야 합니까?

가리온: (㉦ 결연하게) 막아야지. 이 글자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한가 نوم: (떠오른 듯) 허나……! 이미 오늘! 이신적이 거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리온: (쿵!) ……!

S#57 궁 일각 (낮)

가는 황희와 이신적.

이신적: (허허 웃으며) 오늘은 전하께서 우리 신료들의 뜻을 가납하시지 않겠습니까?

황희: 그러셔야지…….

웃으며 가는 황희와 이신적.

S#58 다른 궁 일각 (낮)

이도, 정인지, 무휼과 함께 가는데, 오는 정득룡.

정득룡: (예를 취하며) 방금 영상 대감과 우상 대감이 등청하였다는 보고입니다.

이도: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그래, 가자.

S#59 반촌 내 도축소 (낮)

S# 56 연결.

가리온: (위기감 가득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며) 이도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신적을 막아야 해! 당장 중지시키거나, 당장!

㉠ **웃으며 가는 이도와 심각한 가리온에서 엔딩.**
- 김영현·박상연 극본 (이정명 원작), 「뿌리 깊은 나무」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동작과 표정은 지시문을 통해 표현한다.
- ②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등장인물 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③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로 꾸며 독자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한 문학이다.
- ④ 인물의 행동과 대사로 이루어진 서사를 영상으로 보여 주기 위한 대본이다.
- ⑤ 짧게 분절되어 있는 장면들이 모여 인물의 성격과 특징, 사건의 진행을 나타낸다.

7. 윗글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3에서 '혜강'역을 맡은 배우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리라는 큰 목소리로 연기해 주세요.
- ② S#13에서 '이도'역을 맡은 배우는 진행될수록 대사를 점점 고조되는 목소리로 하는 것이 좋겠군요.
- ③ S#17에서 '덕금'역을 맡은 배우는 대사와 행동지문에 더욱 신경 써 주세요.
- ④ S#55에서 효과음과 음악, 그리고 '가리온'의 표정을 통해서 '가리온'이 받은 충격을 돋보이게 해야겠어요.
- ⑤ S#57에서 '이도'를 만나러 가는 '이신적'은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표정을 지어야겠군요.

8. 윗글의 S#13~S#16에서 '이도'의 말하기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ㄱ.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ㄴ. 상대방 질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 ㄷ.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말에 끌어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ㄹ.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ㅁ. 비유를 통해 대상의 부정적인 속성을 나열하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 ② 화면 분할을 통해 같은 감정을 느끼는 서로 다른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③ 따로 촬영한 화면을 붙여서 사용하는 기법이 적용되었다.

- ④ 희곡에 비해 시·공간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적은 편이다.
- ⑤ 여러 장면을 통해 갈등에 대처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3년에서 ㉠ 이후의 장면은 해강이 설득의 주체이고 ㉡ 이후의 장면은 이도가 설득의 주체이다.
- ② ㉢은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은 '가리온'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④ ㉢이 특정 계층의 권력과 힘의 근거일 수 있음이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은 화면 분할의 연출 방법을 사용하여 '이도'와 '가리온'의 갈등 구조를 부각할 수 있다.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촬영을 위한 전문 용어가 사용된다.
- ②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위한 갈래이다.
- ③ 서술과 묘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 ④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시·공간의 변화를 위해 장면 번호를 사용한다.

12. 윗글의 등장하는 인물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도는 관료들이 백성의 뜻을 임금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이도는 새로운 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리라고 믿고 있다.
- ③ 가리온은 한글을 반대하는 역할을 통해 오히려 한글이 가진 우수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해강은 중국의 한자가 유학의 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여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은 유학을 버리는 것이라 믿고 있다.
- ⑤ 채윤은 말없이 표정 변화만으로 자신의 감정 변

화를 보여 주어야 하는 인물로 내면 표현을 위한 연기력이 요구된다.

13. 윗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인물의 심리적 충격을 위한 효과음으로 적절한 시나리오 용어는 M.(music)이다.
- ② ㉢: 한글이 단기간에 익히기도 잊기도 쉽다는 의미이다.
- ③ ㉣: 한글이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읽을 수 있는 표의 문자라는 뜻이다.
- ④ ㉡: 혈통과 신분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의 신분 구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 ⑤ ㉢: 행동 지시문으로 인물의 행동과 연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14. 윗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면 분할이라고 하는 화면 기법 중의 하나이다.
- ② 한 화면을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③ 인물의 표정 대립을 통해 이어질 내용이 갈등임을 드러낸다.
- ④ 여러 장면을 동시에 보여 주어 스토리의 갈등 구조를 드러낸다.
- ⑤ 두 화면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겹쳐 이야기의 전환을 가져온다.

1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강: 한자를 유학의 도(道)로 보고 새로운 글자 창제에 반대하는 인물이다.
- ② 이도: 한글 창제에 대한 뜻을 고수하기 위해 유학에서 중시하는 덕목을 부정하는 인물이다.
- ③ 한가눔: 한글의 우수성을 깨닫고 그 영향력에 충격을 받는 인물이다.
- ④ 가리온: 사대부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 ⑤ 이신적: 이도와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인물이다.

【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이도(세종대왕의 이름)는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대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의 몇몇 학사들과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그러다 그 사실이 알려져 유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 제16부 -

S#13 광화문 앞 (낮)

해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해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해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좋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cut.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 자. 앞엔 해강이 있다.

해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 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도: (보고)

해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이옵니다. 현대……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도: …….

해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요, 없소.

해강: (그럼 그렇지.) 현대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यो. (하며 궤도로 간다.)

㉡ cut. 궤도에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해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해강: ㉢ (멈칫)

모두: (멈칫)

이도: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해강: …….

이도: 이는 말ियो.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강한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오! 삼봉은!

해강: …….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 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채윤: (보는 데서 cut.)

S#14 경북궁 일각 (낮, S# 14~16 몽타주)

한곳에 관리들 모여 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은성: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cut.)

이도: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cut.)

S#15 성삼문 술 마신 곳 (낮)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순지: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패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는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지……. (cut.)

이도: (버럭) 네놈이 선비냐? 네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나? (cut.)

<중략>

S#55 반촌 한구석 (낮)

한가 نوم이 어느 쪽을 보면 옆의 가리온도 한가 노미 보는 곳을 보는데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마주 보고 있는 개파이와 연두. 나뭇가지로 땅에 뭔가를 쓰며 놀고 있다.

개파이가 손바닥으로 흙을 지우더니, 새로 쓴다.
“카르페이”. 그 앞에 연두가 쓴 글자도 보인다.
“난 밥을 먹었다.”

가리온, 놀라서 본다.

한가 نوم: (자기도 믿기지 않아) 개파이는 자기 이름을 쓰고, 연두는 이 글자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가리온: (쿵!) ……!

한가 نوم: 이틀 만입니다!

가리온: ㉠ (쿵! 천천히 개파이에게 다가가 이름 쓴 걸 가리키며) 이게 뭐냐.

개파이: 내…… 이름이다.

가리온: 어떻게…… 읽는 것이냐?

개파이: (한 글자씩 짚으며) 카…… 르…… 페…… 이…….

가리온: 진정…… 이틀 사이에……?

하는데 연두, 옆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 가리온 고개 돌려, 연두가 쓴 것을 보는데, 바닥에 있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 “진정 이틀 사이에” 한가 نوم도 보고 놀란다.

- 김영현·박상연 극본 (이정명 원작), 「뿌리 깊은 나무」

16.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2개)

- ① ㉠: 내시와 궁녀들은 시위하는 유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도’의 의도를 짐작하는 표정을 짓게 한다.
- ② ㉡: “作開言路 達四聰”를 간단하게 풀이한 자막을 삽입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③ ㉡: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임금의 뜻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짓게 한다.
- ④ ㉡: 글자의 창제 원리를 궁금해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말투로 연기하게 한다.
- ⑤ ㉡: 연두가 쓴 글자의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도록 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S#55에서 이틀 사이에 훈민정음을 익혀 글을 쓰는 ‘연두’를 본 ‘가리온’과 ‘한가 نوم’은 충격을 받아 당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이도’는 백성들을 위한 글자를 반포하기 위해 사대부를 설득하고 있다.

② ‘이도’는 새로운 문자를 통해 백성들의 언로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S#56에서 ‘가리온’은 모두가 글자를 알게 되면 조선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혼돈에 가득 차게 되어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지리라 생각한다.

⑤ ‘한가 نوم’은 새로운 글자가 가져올 파급력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다. ‘한가 نوم’은 ‘가리온’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글자에 위기를 느낀다.

2. [정답] ④

[B]는 한 화면을 나누어 두 장면을 보여 주는 기법으로, 표정을 번갈아가며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①, ② 모두 몽타주 기법의 효과로 적절하다.

③, ⑤ 모두 분할 기법의 효과로 적절하다.

3. [정답] ①

‘혜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혜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정답] ⑤

㉞에서 ‘가리온’은 ‘멍하게 놀란 표정’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글자로 인해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쓰게 되었을 때 생길 문제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① ㉞은 한글 반포 반대 세력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는 부분으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② ㉞은 강한 말소리를 통해 훈민정음이 백성에게 필요한 이유를 관철하는 ‘이도’의 의지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㉞은 ‘개파이’와 ‘연두’가 이틀 만에 글을 배워 쓰는 모습을 본 ‘가리온’의 대사이므로 적절하다.

④ ㉞ ‘꽝’하는 음향 효과를 통해 충격과 경악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③

S#15에서 ‘이순지’는 그림으로 그린 《삼강행실도》를 예로 들며, 글자를 쉽게 만들어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도, 백성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S#13에서 ‘채윤’은 경비를 서고 있고,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대한 설전은 ‘혜강’과 ‘채윤’만 하고 있다.

② S#14에서 ‘장은성’은 훈민정음이 더 쉬워 한자를 버리는 선비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④ S#17에서 ‘근지’는 오랫동안 ‘이도’가 논쟁을 하였으니, 다 설득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⑤ S#56에서 ‘한가 نوم’은 새로운 글자의 파급력을 알게 되어, ‘이신적’과 ‘이도’의 만남을 걱정하고 있다.

6. [정답] ③

윗글은 시나리오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관람자가 보게 하기 위한 작품이다. 읽게 하기 위한 문학은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①, ②, ④, ⑤ 모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7. [정답] ⑤

S#57에서 ‘이신적’은 ‘(허허 웃으며)’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S#13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대해 '혜강'과 '이도'가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므로 '혜강'은 뜻을 굽히지 않는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연기해야 한다.

② S#13에서 '이도'는 '(점점 강한 목소리로)' 대사를 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③ S#17에서 '덕금'은 대제학의 상소가 길다는 것을 '(글자방 끝에서 끝을 가리키며)'와 같은 지시문과 대사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④ S#55 '가리온'은 이틀 만에 글을 쓰는 '연두'를 보며, '(충격과 경악) ……! (짹! 하는 효과음이나 음약)'이라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8. [정답] ①

ㄱ. '이도'는 S#16에서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와 같이 의문형 어미를 통해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ㄴ. S#13에서 '이도'는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라고 묻는 '혜강'의 질문에, 진정한 유학은 훈민정음을 통해 언로를 열어 주어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ㄷ. '이도'는 S#13에서 '《경제문감》' 속 정도전의 말을 끌어와, 관료들에 의해 언론이 막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쓰고 있다.

ㄹ. 구체적인 예를 들고는 있으나, 이는 상대의 말에 반박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이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ㅁ. 비유나, 열거는 사용하지 않았다.

②, ③, ④, ⑤은 '이도'의 말하기 방식의 묶음으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②

'웃으며 가는 이도와 심각한 가리온에서 엔딩.'은 화면 분할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조되는 두 사람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법이다.

① 다음 글은 소설이 원작인 작품을 드라마 상영을 위해 만든 시나리오이다.

③ S#14에서 몽타주가 사용되었다.

④ 시나리오는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상연하는 연극에 비해 시·공간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적다.

⑤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대해 여러 사대부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이도'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10. [정답] ③

㉞은 '가리온'이 훈민정음이 나라의 질서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다.

① ㉠ 이후 '혜강'이 '무'에 대해 설명하였고, ㉡ 이후 '이도'는 '작개언로 달사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선지는 적절하다.

② ㉢은 중국 관리와 언로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가리온'은 ㉤은 '칼보다, 창보다, 유향보다 무서운 무기'라고 말하며, '글을 알기 때문에 사대부'라고 말하였으므로 선지는 적절하다.

⑤ ㉥은 서로 다른 장소에 서로 다른 표정을 짓는 두 인물을 한 화면에 보여 주며, 인물들의 갈등 구조를 부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정답] ③

서술과 묘사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뒷글은 시나리오이므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①, ②, ④, ⑤은 모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12. [정답] ②

'이도'는 새로운 글자를 통해 백성들이 언로를 띄워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글자가 사회를 변하게 한다는 것은 '가리온'의 생각이다.

① S#13에서 '이도'는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요!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요.'라고 말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S#56에서 '가리온'은 새로운 글자를 백성들이 배우면, '조선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세상은 혼란에 가득 차'며,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글자 반포를 반대한다. 이러한 '가리온'의 모습을 통해 한글의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 주어, 우수성이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④ S#13에서 '해강'은 '무'라는 한자에 '유학의 도'가 담겨 있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글자를 쓰게 하는 것은 유학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⑤ S#13에서 '이도'가 말을 하면 '이도'를 보는 '채윤'이 등장한다. '채윤'은 '이도'의 말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인물로, 인물의 내면을 표정으로만 연기해야 하므로 연기력이 요구된다.

13. [정답] ⑤

㉞는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으로 연기자는 지시문에 따라 연기를 해야 한다.

① ㉞는 심리적 충격을 대사 없이 연기하라는 지시문이지, 효과음은 아니다.

② ㉞는 단기간에 한글을 익히고 쓸 수 있음에 놀람을 나타내는 대사이다.

③ ㉞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읽을 수 있는 표음 문자이다.

④ ㉞는 혈통과 신분이 아닌, 글을 안다는 것을 통해 얻은 사대부의 권력이 흔들려 조선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14. [정답] ⑤

㉞은 한 화면을 나누어 두 장면을 제시하는 방법이지, 두 화면을 겹쳐 전환하는 기법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모두 ㉞의 설명으로 적절하다.

15. [정답] ②

'이도'는 새로운 글자를 통해 백성의 언론을 퇴워 주는 것이 유학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해강'은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라고 말하며,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③ '한가 놈'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이 사회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리온'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있다.

④ '가리온'은 한글로 인해 모든 사람이 글을 읽게 되면,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가리온'은 이러한 이유로 사대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 창제 및 반포를 반대하는 인물이다.

⑤ '이신적'은 한글 반포를 허락하는 대신, 집현전을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이도'를 만나러 가는 인물이다.

16. [정답] ②, ⑤

㉞은 한자이므로, 한자의 뜻을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자막을 삽입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㉞ '가리온'과 '한가 놈'이 보고 논란 연두의 글을 클로즈업하여, 이를 만에 한글을 습득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글자임을 강조할 수 있다.

① ㉞은 유생과 설전을 벌이기 위해 '이도'가 행차하는 장면으로 궁녀와 내시가 유생과 눈을 마주치는 방법으로는 '이도'의 의도를 짐작하게 만들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㉞은 '이도'가 '정도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놀람을 드러내는 표정을 짓게 해야 한다.

④ ㉞은 '연두'와 '개파이'가 쓴 글을 보고, 한글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눈빛과 말투로 연기해야 한다.